



아이를 씻기며

막내가 발을 다쳤다. 수영장 샤워실에서 나오다가 뒤따라 나오던 아이가 문을 활 여는 바람에 문 모서리에 긁히며 피부가 찢어졌다. 병원에 데려가니 껌때기에는 애매한데 상처가 좀 깊어서 2주 정도 붕대를 해야 하고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했다.

난감했다. 애 넷을 키우는 동안 2주 동안 샤워를 못할 정도로 다친 적은 처음이었다. 30도를 육박하는 초여름, 매일 땀 흘리는 아이를 안 씻길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발에 랩을 씌우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우고 후딱 머리를 감기고 몸은 대충 씻겼다. 금방 씻기기는 했지만 씻는 자세도 좀 불편하고 엄마가 재미있게 해 준 것도 전혀 없는데 아이는 웬일인지 몹시 신이 나 있었다. 아직은 기분이 좋으면 주체가 안 되는 순수한 막내는 샤워 시간을 무슨 놀이 시간이라고 되느냐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매일 학교만 다녀오면 "엄마, 샤워 언제 해?" 하며 나를 쫓아다녔다. 그렇게 삼일째 되던 날 아이에게 "엄마가 씻겨주는 거 좋아?" 했더니 "응. 엄청 오랫동안 엄마랑 샤워를 못했잖아. 2년 넘었을 걸?" 한다. 아이가 2년이라고 했지만 실은 3-4년은 족히 되었을 것이다.

그랬다. 막내는 네 명의 아이들 중 가장 이른 나이에 엄마 손에서 벗어났다. 아이의 성장 발달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였다. 나는 아마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을 거다. 올망졸망 애를 낳이나 낳으면서 쉴 틈 없이 거의 10년 동안 아이들을 씻겨왔으니깐 그럴 만도 하지 않나? 매일 서너 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씻기는 일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다. 10년이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욕구가 하늘을 치솟을 때 그 당시 한참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는데 심취되어있던 초등학교 2학년 딸을 꼬셨다. 동생과 같이 샤워하며 씻겨주라고. 처음에는 모두가 행복했다. 딸도 혼자 씻는 것보다 재미있는지 샤워할 때면 잔뜩 신이 났다. 막내도 불친절한 엄마보다는 누나가 나왔는지 제법 누나를 잘 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샤워실에서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느 날은 딸이 "엄마, 나 오늘 혼자 씻으면 안 돼?"하고 묻는 날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늘어갔다. 평화는 늘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데 며칠 전 막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다가 말고 말했다.

"엄마, 이건 비밀인데...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있잖아... 누나가 옛날에 나 샤워시킬 때 내 엉덩이 세게 때렸어."

"네가 장난치거나 말을 안 들었어?"

"아니 그냥 때렸어. 엄청 아팠어."

"근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누나가 엄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

누나가 말하지 말란다고 말을 하지 않은 막내도 잔했지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학대당하고 집에 가서 말하지 않는 아이처럼) 그 어린것이 동생 씻기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으면 엉덩이를 때렸을까 싶어서 그때의 딸에게 몹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었던 일을 결국 초등학교 딸에게 떠넘긴 셈이니깐 엄마로서 자격 미달인 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그때의 부작용인가... 한동안 동생 돌보느라 고생한 탓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 딸은 동생 돌보는 일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다.

암튼 막내를 제외하고 다른 아이들은 부모에게 해방되어 혼자 샤워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쾌재를 부르며 좋아했다. 씻는 동안 마는 등 물만 틀어놓고 뭘 하는지 5분도 안되어서 샤워 다했다며 물을 줄줄 흘리며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가... 나라도 그랬을 거다. 나는 6학년 때까지 엄마가 나를 씻겨줬는데 때를 밀던 엄마의 짜증 수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느라 몹시 피곤했던 기억이다. 하지만 우리 집 막내는 엄마가 씻겨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니 부모 노릇 쉽지 않구나.

막내의 다친 발에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생겨서 오늘부터 샤워를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리도 좋아하니 앞으로 종종 막내를 씻겨줘야겠다. 그러다 보면 얼마 안 가 혼자 씻겠다고 엄마 나가라고 하겠지. 그리고 딸에게도 그때 엄마 대신 동생을 씻겨줘서 고마웠다고 말해줘야겠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 지금이 집을 파실 기회입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pay when close escrow)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

최근 판매한 매물들

780 W Rossslynn AVE FUL	\$950,000
8062 Ainsworth LN La Palma	\$1,350,000
5320 Buck Hill AVE Buena Park	\$2,000,000
11762 Lakeland RD Norwalk	\$740,000
120 Gemstone Irvine	\$1,385,000
11433 Excelsior DR #A NorWalk	\$600,000
5409 Arrowhead AVE Buena Park	\$900,000
988 Glendora Dr, Oceanside 92057	\$825,000
1661 Interlachen M11-286B Seal Beach	\$265,000
4559 Toledo WAY Buena Park	\$581,000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3110 Cochise WAY #102 Fullerton	\$473,000
7770 Youngdale WAY #D Stanton	\$450,000
5087 Argyle DR Buena Park	\$500,000
1001 W Lambert RD #169 La Habra	\$210,000
629 Drake AVE Fullerton	\$893,000
6045 Barry DR Cypress	\$960,000
3143 W Lincoln AVE Anaheim	\$659,000
596 Escenico Lake Forest	\$1,085,000
2615 Tuscany WAY Fullerton	\$1,607,000
6495 Saipan ST Cypress	\$1,002,540